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12. 2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프랑스, 올림픽 개막식 개최장소 변경 검토

- 12.21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테러 등 안보 위협이 커짐에 따라, 이민법을 강화하는 한편 센강에서 개최하기로 한 파리올림픽 개막식 장소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

※ 지난 10월 동북부 고등학교에서 체첸인 남성이 교사를 살해한 데 이어, 최근 극단주의자에 의한 관광객 살해사건이 발생, 올림픽 테러 우려 확산 중

○ 튀르키예, 이라크·시리아에 있는 PKK 은신처 공습

- 12.24 언론은 최근 튀르키예군이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쿠르드노동당 (PKK) 소탕 작전 중 自國 병사들이 사망하자, 보복을 위해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등지를 공습해 29개 테러리스트 은신처 등을 파괴했다고 보도

○ 유럽, 성탄절 테러 위협으로 보안 조치 강화

- 12.25 언론은 독일 쾰른 대성당 테러 공격 위협, 체코 프라하 공항 폭탄 설치 협박, 슬로바키아 총기 난사 사건 모방 예고 등 유럽 각지에서 성탄절 테러 위협이 발생하여 유럽 국가들이 보안을 강화했다고 보도

※ 이달 초 EU는 이스라엘-하마스 분쟁으로 '엄청난 공격 위협'을 경고

미주

○ 美, 공직자 위협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

- 12.25 언론은 美 법무부가 自國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으며, 외국 테러단체 등에 선동된 개인이나 소그룹에 의한 테러 위협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- 파키스탄, 올해 자살폭탄 테러 29건으로 329명 사망
 - 12.26 파키스탄 분쟁 및 안보연구소(PICSS)는 파키스탄에서 올해 자살폭탄 테러는 29건으로 329명이 사망하고 582명이 부상했으며, 전체 테러 건수도 623건으로 지난해(380건)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발표
 - ※ 전문가들은 '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고 분석
- 日, 하마스 자금줄 차단을 위한 추가 제재 결정
 - 12.26 언론은 일본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'하마스'로 흘러 들어가는 테러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하마스 간부 3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고 보도
 - ※ 일본 정부는 지난 10.31에도 하마스 공작원 9명과 가상화폐 거래 회사 1곳에 대해 자산을 동결했으며, 하마스 관계자 추가 지정 등의 제재 필요성도 검토 중

중 동

- 親이란 무장세력, 이라크 미군 기지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 부상
 - 12.26 외신은 親이란 무장세력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하여 미군 3명이 부상한 데 대해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은 보복 타격을 지시, 미군은 同 무장세력의 다수를 사살하고 시설 여러 곳을 파괴했다고 보도
 - ※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 '카타이브 헤즈볼라'와 관련된 단체들이 배후를 자처

아프리카

- 소말리아 軍, 알샤바브 소속 테러리스트 130명 사살
 - 12.24 외신은 소말리아 軍이 무장 테러단체 알샤바브*에 대해 군사 작전을 시행하여 테러조직원 130명을 사살하는 한편 同 조직의 은신처도 습격하여 다량의 무기와 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
 - * '06년 결성된 단체로 소말리아내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, 현재 미국, 영국, 호주, 캐나다, UAE, 싱가포르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
아프간, 시아파 대상 자살폭탄테러 발생

- '17.12.28 무장세력이 카불의 시아파 문화센터(타바안·타비안 문화센터)를 대상으로 자살폭탄테러를 자행, 50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
 - 당시 문화센터에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38주년 기념 및 토론 포럼을 위해 대거 인파 운집
- ISIS-K(ISIS-호라산 지부)는 직접 운영하는 아마크 통신사 온라인 성명을 통해 “이슬람 국가의 이단으로 여겨지는 아프간 시아파 소수민족을 겨냥한 시리즈 中 하나”라며 공격 배후를 주장
 - * UN 발표에 따르면 16년 초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12건의 공격이 시아파를 겨냥하였으며, 700명이 사망
- 이에 아프간 대통령 「아슈라프 가니」는 “인류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”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
 - 또한, 아프간 UN책임자인 「토비 랜저」는 “카불에서 테러는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한 비열한 범죄”라고 표현하며 비판

< ISIS-호라산 지부(ISIS-K) >

- (목표) 호라산 지역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 - * 이란어(페르시아語)로 ‘일출 지역’의 의미로 과거 페르시아제국의 동부 지역을 구성 하던 현재의 이란·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 지역을 통칭
- (테러단체 지정) UN('19.5), 미국('16.1), 호주('17.11), 인도('18.6)
- (활동수법) 도시에서는 軍警 및 정부청사·다중운집장소 대상 자폭테러, 지방에서는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
- (생성배경) ‘아프간 탈레반’·‘파키스탄 탈레반’ 조직에서 소외된 중견 간부들(특히, 파키스탄 부족 자치지역 출신)이 이탈, ISIS에 충성맹세 후 결성
- (주요테러) ('20.8월) 낭가하르州 교도소 습격(29명 사망), 수감 조직원 270명 탈옥지원 ('21.8월) 카불 공항·인근 호텔 자폭테러(182명 사망·200명 부상)